

트럼프, 대선 전 코로나 백신 기다리는데...

계약사들 “과학·안전성 최우선...안전입증돼야 승인 신청”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들이 ‘과학’과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백신 출시를 앞당기려 한다는 의구심이 퍼지는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dpa통신과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9개 제약사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대규모, 고품질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뒤에만 당국에 백신 승인을 신청할 것을 서약했다.

이는 출시 전 마지막 단계 임상시험인 3상 시험에서 적절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백신 승인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CNBC가 보도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엔테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존슨앤드존슨, 머크, 모더나, 노바백스, 화이자, 사노피 등 9개사는 “항상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의 안전과 웰빙을 우리의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과

학적 절차의 완결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약속이 엄격한 과학적, 규제적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이런 절차에 의해 평가받고 궁극적으로 승인받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런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백신을 승인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의신들은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나

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11월 1일 이전에, 10월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대선 전인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의료진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하라고 50개 주정부와 5개 대도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러시아는 3상 임상시험 전에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해 논란을 일으켰고, 중국 칸시노 생물주식회사도 3상 시험을 마치고 전 다수 국가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아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연합뉴스

반면, 중국은...

미승인 백신 사용 10만건 넘어 가을·겨울철 방역 수위 높여

중국 내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긴급하게 사용한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섰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9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중국 제약업체인 시노팜과 시노백에서 개발한 백신을 긴급 접종한 사람 수가 10만 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시노팜과 시노백은 의료 종사자와 해외 노동자, 백신 산업 종사자 등을 상대로 백신을 접종했으며, 아직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시노팜 측은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 수 천 명 등 많은 사람이 우리 백신을 접종했다”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심한 지역의 접종자 중 지난 몇 달 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또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감 예방을 위해 가을과 겨울철 독감 백신 공급량을 확대했다.

중국 의료 전문가들은 올해 독감 백신 시판 허가 수량이 지난해 두 배인 5천만개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 보건 당국은 이번 달만 지난 8일 기준 700만개의 독감 백신 시판 허가를 승인했다.

중국허베이, 상하이, 스저우, 항저우 등 일부 지역은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캠페인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했다.

뤄밍타오 즈메드 의학 연구소 운영국장 은 “중국의 독감 예방 접종률은 높지 않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늘 것”이라며 “10월과 11월 접종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로나 확산 차단 이스라엘 야간 통금 이스라엘 40개 지역에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야간 통금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관들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날 300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호흡장애·탈모 “코로나 완치자 절반 후유증”

이탈리아 의료진 조사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호흡 장애, 탈모를 비롯한 심각한 다양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 의료진의 연구 사례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베르가모 지역의 의료진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혈액, 심장, 폐 등에 대한 검사와 함께 건강 상태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현지 감염병 전문가인 세레나 벤틀루리는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됐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거의 절반이 ‘노

(NO)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치료를 통해 몸에서 바이러스는 사라졌지만,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조사한 750명의 코로나19 회복자 가운데 약 30%는 폐에 상흔과 이로 인한 호흡 장애를 겪고 있다.

또 다른 30%는 심장이상이나 동맥경화 등과 연결된 염증이나 혈액 응고 등을 앓고 있다. 일부는 신장 기능 장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사람은 다리 통증이나 탈모, 우울증, 심각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그는 이 때문에 폐모지에 의존하고 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 결과, 그의 뇌에서는 점과 같은 손상 흔적들이 나타났다. /연합뉴스

코로나 확진 승객에 2억원 에티하드항공 보험 도입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항공사인 에티하드항공은 여행 첫날로부터 31일 이내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는 경우 최대 15만유로(약 2억1000만원)의 의료 비용과 하루 최대 100유로(약 14만원)의 격리 비용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에티하드항공은 AXA와 협력해 코로나19 여행자 보험을 도입했으며, 해당 보험은 항공기 탑승일로부터 31일간 전 세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 여행하는 모든 승객에게 해당 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신규 예약 승객은 물론, 기존 예약 승객 역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1년짜리 총리? NO!

日 스가

장기집권 욕망 ‘스멀스멀’

내각 출범 후 중의원 해산·조기 총선 가능성

‘포스트 아베’ 경쟁에서 독주 체제를 굳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년 잠정정권’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넘어 장기 집권을 노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9일 “스가 씨가 ‘아베 계승’을 내걸면서 ‘장기 본격 정권’을 시야 넣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스가 관방장관이 지난 2일 민영 방송 니혼TV 출연 당시 “1년뿐인 핀치터(대타)인가”라는 질문에 “핀치터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이라며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은 것이 주목됐다.

스가 장관의 주위에선 “내년까지밖에 못 한다고 말하면 누구의 상대도 못 된다”며 장기 정권을 향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이후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의 지지로 포스트 아베 유력 주자로 급부상한 스가 장관은 자민당 총재에 이어 차기 총리로 선출되더라도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인 내년 9월까지만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되는 이번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1년이다.

그러나 스가 장관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내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자,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1강 장기 집권’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스가 장관은 자민당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부 연합회 대표의 지지를 받는 데도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80%에 가까운 자민당 국회의원 지지를 받는 스가 장관이 도도부현 대표 당원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되면 약식 선거로 당 총재를 뽑겠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는 16일 일본 중의원에서 새 총리로 지명된 이후에는 ‘탈(脫) 파벌’을 표방한 정부 및 당 인사를 단행해 정권의 구심력을 높인다는 게 스가 장관 측의 구상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스가 장관이 정권 출범 이후 새 내각에 대한 기대감이 클 때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과속 아닌걸로 하자”

레드불 손자 뺑소니 ‘조작’ 대화록 공개

‘태극관 유전무죄’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레드불 손자 뺑소니 사망사고 불기소 논란과 관련해 조직적 비호 의혹을 보여주는 대화록이 공개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인터넷 언론 ‘이스라 뉴스’는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웃 유티아(35)의 2012년 뺑소니 사망사고를 담당할 경찰관들과 이는 대화록을 전날 공개했다고 온라인 매체 카오넷이 9일 보도했다.

대화록에는 이들이 오라웃이 사고 당시 몰았던 페라리의 속도를 실제로 다 낮추기 위해 모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화록을 보면 익명 처리된 한 검사는 “교수가 계산한 대로 당시 페라리의 속도가 79.22km로 되기를 원한다. 법에는 (도심 내 속도는) 시속 80km를 넘

지 못하는 만큼, 그 범위 이내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한 경찰관도 “교수는 페라리 속도를 79.22km로 계산하는 게 가능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계산상 실수로 속도가 잘못 계산됐다고 주장하지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고 당시 경찰은 애초에는 페라리의 속도를 177km로 추산했지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 속도를 79.22km로 대폭 줄였다.

결국 이는 오라웃을 상대로 제기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7월 말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대화록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게 시시해 설립된 진상조사위원회가 확보해 총리에게 보고한 자료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 1작 1작 名명

광화문父子작명가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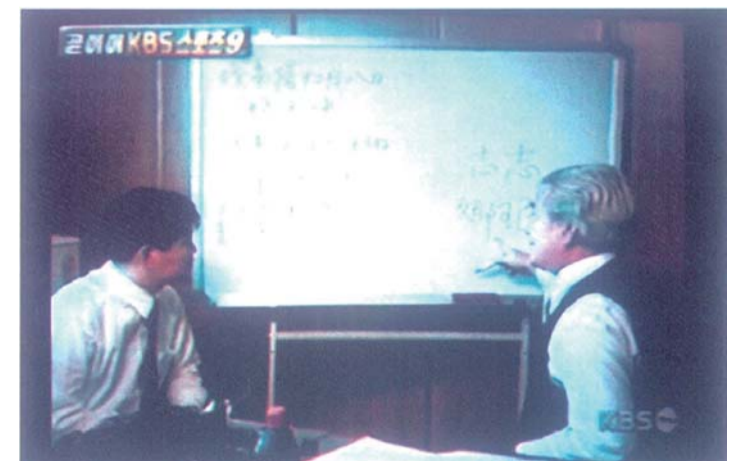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